

볼거리·즐길거리 쏟아진다 '화순 고인돌 축제'

다음달 21일 개막...공연·전시·체험 등 46개 프로그램
200t 핑매바위 주변 조형물 전시·가수 초청 공연 등 풍성

화순군이 다음달 21일부터 열리는 '2023 화순 고인돌 축제'를 앞두고 준비에 한창이다.

화순군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세계문화유산고인돌의 역사적 가치를 꽃피고 함께 재조명, 전남을 넘어 전국 대표축제로 도약하기 위해 축제 장소를 남산 공원에서 고인돌 유적지(도곡면 효산리·춘양면 대신리)로 옮겨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공식행사 공연 전시 체험 등 총 4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그 어느 때보다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군민화합페스티벌 형식의 고인돌축제 개막식 행사는 화순하늬공설운동장에서 VIP환영식, 식전공연, 드론쇼, MBC 개막 축하쇼 순으로 개최된다. 특히 개막식을 화려하게 장식할 MBC 개막 축하쇼는 개막식을 전·후해 1·2부로 진행하는데 입장

정, 코요테, 다나카, 하이키가 1부를, 김호중, 안성훈, 한혜진, 금잔디, 강예슬, 영기, 정다경이 2부에 출연하여 군민들과 흥겨운 화합의 장을 펼친다.

4월 22일에는 도곡 웨네스스파리조트에서 (사)국제민속축전기구협의회 한국본부(씨오프코리아)가 주관하는 고인돌 유적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제학술회의가 열린다.

또한 축제 공연행사는 총 11개 프로그램으로 축제장 주무대, 거석테마파크, 춘양 피크닉존 등 3곳에서 준비된 공연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2023화순고인돌축제는 축제장 5곳에 별도의 전시 프로그램을 마련해 선사시대 시크릿 가든의 멋과 품격을 살리는데 중점을 뒀다.

남방식 고인돌로 세계 최대를 자랑하는 200t 핑매바위 주변에는 주제와 예술성을 담은 갖가지 조

형물을 전시하고, 춘양 지동마을 체험관에는 각종 농기구를 전시해 옛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온 전통 농경문화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광객들의 취향을 고려한 20개가 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춘향 체험존과 도곡체험존, 거석테마파크, 도곡 유채밭, 보검재 등에서 펼쳐진다.

메타버스 수렵채집체험과 K-pop 리듬게임, 스크린 사격대회, 인생네트 포토자판기, 우드토퍼·MBTI 체험 등 5개는 춘향 체험존에서 운영되고, 반려동물 놀이시설인 핑존은 춘양 피크닉 존에 설치·운영된다.

도곡과 춘양 3.2km 구간에는 고인돌 열차가 운행되고, 보검재 아래에선 심신을 치유하는 요가와 명상 체험장이 준비돼 있다.

부대행사로는 반려동물 문화축제인 핑스티벌이 24일 하늬공에서 열고 다음 가드닝 대회(21-23일 대회, 전시 24-26일 체험·판매·전시)는 옛 선사 체험장에서 개최된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화순군이 고인돌 유적지에 봄꽃을 심고 산책로를 정비하는 등 축제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축제가 열릴 화순 고인돌 공원 전경. <화순군 제공>

반려동물과 '아름다운 동행' 꿈꿔요

나주시, 29일 빛가람호수공원에서 캠페인...사회적 책임 의식 고취 등

나주시가 반려동물 가구 증가에 따른 올바른 반려 문화 정착과 사회적 책임 의식 고취를 위한 민·관·학 합동 캠페인을 연다.

나주시는 오는 29일 빛가람호수공원 중앙무대 일원에서 '반려동물 희망 동행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와 동산대학교 반려동물학과, 동물병원, 놀다가(사회적협동조합) 등 관계 기관에서 분야별 실무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반려동물 재능기부를 펼칠 예정이다.

유기견 입학 홍보관(같이살게), 반려동물 무료 진료소(건강하게), 이벤트관(행복하게) 등 다양한 부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입양홍보관에서는 나주시 유기동물 보호센터 내 보호 중인 유기동물과 교감의 장을 마련해 입양 절차 홍보와 현장 입학 등을 진행한다.

지역 동물병원에서는 재능기부를 통해 반려동물 무료 진료소를 운영한다.

반려동물 성향·습관·행동 교정,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응급처치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나주시는 '동물보호법' 개정사항, 핏티켓(Petiquette), 유기동물 입양 절차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 반려동물 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한다.

올해 4월 27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 주요 개정사항은 '반려동물 소유자 관리 의무 강화', '민

간 동물 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사육 포기 동물 지자체 인수',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등록제에서 허가제 변경' 등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 강화에 중점을 뒀다.

시는 분기별 1회 이상 반려동물 행사 개최를 비롯해 반려견 등록, 실외 사육·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등 동물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 의무제에 따른 유기·유실동물 최소화, 입양문화 확산 등을 통해 사회적 비용 절감은 물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분위기가 조성에 힘써가겠다"며 "이번 캠페인이 반려인과 비반려인 구분 없이 동물 보호, 복지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함평 '제철밥상' 문전성시



함평군 월아면 로컬푸드 음식점 '제철밥상' 식단. <함평군 제공>

한달만에 3000명 다녀가

함평군은 지난달 문 연 로컬푸드 음식점인 '제철밥상'에 한 달 동안 3000명 넘는 손님이 다녀갔다고 27일 밝혔다.

음식점 제철밥상은 함평군 월아면 월아리 로컬푸드 직매장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곳은 지역에서 난 신선한 식재료로 다채로운 건강 밥상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달 19일에 문을 연 뒤 운영 기간

한 달 동안 3000명의 고객을 기록했다.

함평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 농가가 생산한 600여 개의 신선한 농·축산물을 직거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노원숙 함평로컬푸드법인 대표는 "함평의 신선한 농특산물을 활용한 제철밥상으로 '정정함평' 위상을 높여가겠다"며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직매장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나비대축제서 저렴하게 즐기는 함평 축산물

4월 28일~5월 7일 개최
축산물 판로 넓히기 행사
한우·한돈·오리 훈제 무료 시식



함평군과 함평축산업협동조합 등 축산물 생산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22일 군청에서 '25회 함평나비대축제' 축산 프로그램 회의를 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이 오는 4월28일부터 5월7일까지 열리는 '25회 함평나비대축제'에서 축산물 판로를 넓히기 위한 행사를 마련한다.

군과 함평축산업협동조합 등 축종별 축산물 생산자단체는 최근 '25회 함평나비대축제 축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의회를 열었다.

축제 기간 함평축협은 '함평전지한우 셀프식당'과 판매장을 운영할 방침이다.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와 함평군지부는 훈제오리와 달걀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대한양계협회 함평산란계지부는 축산물 시식회와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달걀 6만개를 납품한다.

낙농육우협회 함평군지부는 '젓소목장 나들이' 행사를 열어 방문객이 우유 생산과정과 기념 모자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함평전지한우(5월5일), 한돈(5월6일), 오리훈제(5월7일) 무료 시식행사도 진행한다.

'25회 함평나비대축제'는 '봄을 여는 소리, 함평 나비대축제'라는 주제로 오는 4월28일부터 5월7일까지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지역 축제, 모바일 초대장으로 예산 절감

강진군, 병영성축제 모바일 발송 애니메이션·음악 삽입해 볼거리
인쇄물보다 예산 85% 절약

강진군이 전라병영성축제 초대장을 기존 인쇄물 대신 모바일로 발송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강진군은 제26회 전라병영성축제가 오는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병영면 전라병영성 일원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그동안 우편으로 카드 초대장을 보낸 것에서 탈피해 스마트폰 메시지로 초청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강진군이 발송한 모바일 초대장은 사진과 애니메이션 효과, 배경음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축제

가 열리는 병영성 사진을 배경으로 빛깔 이미지가 즐비하고, 가수 이선희의 '인연' 곡이 가야금 연주로 단아한 맛을 살리고 있다.

또 축제 타이틀, 날짜, 장소, 초대 문구와 함께 축제 장소를 카카오톡 지도로 연동 구현해 편의성을 높였다. 지도는 확대·축소가 가능해 주변 관광지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인근 버스 정류장과 버스 번호도 함께 볼 수 있어 축제장 방문 접근성을 높였다.

이 밖에 본인이 받은 초대장을 지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확장성도 뛰어나다는 평가다. 지인 전달은 초청장 우측 상단 카카오톡 버튼을 누르면 된다.

이번 모바일 초청장 발송은 민선 8기 강진군의 핵심 과제인 '전 분야 4차산업혁명기술 접목'에 초

점을 맞춘 것으로, 특히 예산 절감 효과까지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초청장 3000매를 기준으로, 인쇄물의 경우 제작과 발송에 약 320만원이 소요되는 데 비해, 모바일 초청장은 전송료까지 포함해도 50만원 가량에 그쳐, 1/6수준으로 예산과 홍보 효과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지자들이 일일이 라벨 부착 및 봉투 동봉 작업을 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모바일 초대장은 인쇄물에 비해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신속성, 편의성 측면에서도 효과가 뛰어나다"며 "빠른 발송에 분실 우려도 없어, 향후 개최할 축제나 행사 등에서도 모바일 초대장을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화순경찰 '찾아가는 112 시스템' 운영

농촌 거주 어르신 대면 상담

화순경찰서 사평파출소가 지역 어르신들 위한 '찾아가는 112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 젊은 층의 경우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활용에 익숙해 다양한 신고방법을 활용하고 있지만, 고령자의 경우 핸드폰 활용이 쉽지 않아 얼굴을 맞대고 상담하는 경우를 선호하고 있다.

특히 농촌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대중교통 수

단을 이용하는 것도 쉽지 않아 오토바이나 전통휠체어 등을 이용해 파출소를 찾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사평파출소 관계자는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자 분들이 이동 불편 때문에 신고나 상담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며 "이런 고령자들에게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112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